

돌아온 이낙연, 당분간 '강연 정치'로 尹정부 비판 주력할 듯

李, 귀국길서 "모든 국정 재정립하길 바란다" 사법리스크에 '이낙연 역할론' 부상 가능성도 "오래 입 닫고 있을 수 없어...시간 곧 올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해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다.

당분간은 민주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해석돼 당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 달부터 전국 대학가를 돌며 강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간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낙연의 구상' 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해 온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인천공항 입국장

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친다. 대외 관계에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며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길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및 현충원, 5.18 묘역 참배 등 일정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본인의 일정이나 스케줄은 전혀 없다"며 "일단 한반도의 미래와 생존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잠정하면서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일선으로의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귀국길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다.

실제로 그의 이전 정치 행보와 스타일로 미뤄 짐작할 때 공황에서는 인사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나아가 당 원로들처럼 낙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윤 의원은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맞춰질 것"이라며 "단순히 어떤 계파의 주장 또는 비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역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친낙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로 인해 당 내홍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이 대표 대안으로 이 전 대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의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행동 방식과 정치 양상,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라며 "서로가 대안이라고 예

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경민 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이 전 대표의 이미지인 엄중, 신중만 가지고 오래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며 "북도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문제, 민주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외의 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여수시의회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김철민 대표의원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 위해 적극적 의정활동 펼칠 것"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에서 '2023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의회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는 김철민 의원을 대표로 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재경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의원 연구단체다.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은 (취법률저널)이 장간 25주년을 맞아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

제회의장에서 개최했으며,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은 활발하고 우수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를 선정·시상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의원 연구단체 시상에 여수시의회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가 선정된 것이다.

수산 발전 정책연구회는 수산인과의 간담

회, 현장활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수산업 문제에 심도 있는 접근을 추진했다.

특히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여수시 수산업·어촌지원 조례」 공동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정부 및 수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철민 대표의원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연구 활동에 매진한 것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연구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영규 의장님, 소속 의원님들과 전문위원들의 수고에 대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수시의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서한에 "괴담 정치 세계에 선전"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연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괴담 정치"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 다음었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일상화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라면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만한 내용임에도 국민 불안 심리를 부추겨 호도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괴담 선동의 불씨가 꺼질 세라 부랴부랴 발송한 탓인지 발송경로도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함은 물론, 선동을 나라 밖으로까지 끌고 가 '괴담 정치'를 전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 다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한-태도국 정

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이미 공조를 확인했고, 서한 발송은 국제원자력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우리의 자체 안전성 평가 노력 등을 도의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선동 정치 저변에는 무책임함이 깔려 있다"며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두고도 결과를 100% 믿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인식을 보고 있자니, 애초에 '사과'나 '반성'은 기대를 접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무분별한 괴담 유포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지금까지의 무책임함을 무기로 끝 모를 '괴담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불모한 정치 선동만큼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선욱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p>기사제보 (062) 222-2580</p>	<p>광고문의 (062) 228-2580</p>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